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화용·통사론적 특징 중심으로

김 동 미
(백석문화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하나의 원천 텍스트(source text)가 번역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목표 텍스트(target text)로 생산되기까지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텍스트의 장르, 독자의 계층, 출판 관련자들의 정책과 선호도, 번역가의 개인적인 특성과 번역 전략 등이 상호 작용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며 번역 결과물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으로 원작의 저자와 번역가의 성별에 따른 문체의 차이를 기준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양질의 목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의 문화 뿐 아니라 저자의 성별에 따른 다를 수 있는 문체까지도 충실하게 재현될 때 가능하다.

루이스 폰 플로토우(Luise Von Flotow) 등과 같이 불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그 밖의 다른 언어에서 영어를 번역할 경우 여성 문체의 특성을 비롯하여 여성 번역가의 번역 문체를 활발히 연구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번역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일한 원천 텍스트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번역할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의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체를 연구하기 위해 일곱 편의 영·미 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인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데이터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출신 작가의 비율은 물론 원천 텍스트 저자의 성별 비율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번역 문체의 차이를 가능하면 통시적으로도 관찰하기 위해 원로 번역가와 젊은 번역가의 비율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출판사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번역 작품을 순서대로 선별한 결과 다음의 일곱 편이 선정되었다. 이들 일곱 편의 작품은 『제인 에어』(*Jane Eyre*),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등 영국 작가의 작품 세 편과,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Sea*), 『위대한 갯츠비』(*The Great Gatsby*), 『마지막 잎새』(*The Last Leaf*) 등 미국 작가의 작품 네 편 등이다. 이들 일곱 편의 작품들 중 여성 작가의 작품은 세 편이고 남성 작가의 작품은 네 편이다.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은 남성 번역가 신동운, 오영민과 여성 번역가 이덕희, 송은실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는 원로 남성 번역가인 황종호, 이경식과 여성 번역가 이혜리, 홍미란의 번역 작품을,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에서는 남성 번역가 김성구와 박종학의 번역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수연과 김문영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갯츠비』의 경우에는 남성 번역가 김의승과 김육동의 번역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연희, 유혜경의 번역 작품으로, 오 헨리(O. Henry)의 『마지막 잎새』는 남성 번역가 박수남, 강영길의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선영, 신현미의 번역 작품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제인 오스틴(J. Austen)의 『오만과 편견』에서는 남성 번역가 홍건식과 여성 번역가 정은경의

작품을, 에밀리 브론테(E. Brontë)의 『폭풍의 언덕』은 남성 번역가 안동민과 여성 번역가 김은정의 작품을 각각 비교 · 분석하겠다.

고등 교육의 기회 확대로 한국의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 분야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존재하는 여성어나 여성 번역가의 문체 연구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 문체나 여성 번역가의 번역 문체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 · 한 번역시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던 여성과 남성의 번역 문체 특성을 조사 · 분석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이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문체적 등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번역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 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목표 텍스트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1 영어 여성어의 특성과 의미

2.1.1 영어 여성어의 화용 · 통사적 특성

다음의 영어 여성어의 화용 · 통사적 특성은 여성 번역가가 목표 텍스트에 원천 텍스트의 대화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 문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 연구 자료이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정보를 위한 다른 번역의 분야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번역을 필요로 한다. 문학작품은 그 어떤 글쓰기보다 대화 속에 작가의 의도가 내포되거나 함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어 여성어의 화용 · 통사적 특성은 여성 작가의 작품 중 대화체 부분에 나타나는 여성어를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틀이 될 것이다.

에스퍼슨은 “여성의 통사론적 특성으로 여성이 ‘and,’ ‘but,’ 그리고 ‘then’ 등으로 연결된 병렬구조의 구문을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Jespersen 249)”고 결론짓는다.

레이코프는 여성어의 통사론적 특성으로 부가의문문의 빈번한 사용을 든다. 그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자주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단정하기보다는 상대가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Rakoff 16)”라고 주장하였다. 베티 루 두오비스와 이사벨 크라우치는 “‘isn't it?’과 같은 형식적인 부가의문문과 ‘Right?’, ‘OK?’ 와 같은 비형식적인 부가의문문을 여성

이 남성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Betty Lou Duobis and Isabel Crouch 78)”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우만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가의문문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Bauman 67)”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성과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에서 부가의문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홈즈는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 부가의문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Homes 101)”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표 1〉 부가의문문의 기능

의미	부가의문문 사용	
	여성 (%)	남성 (%)
조동사의 의미	18명 (35%)	24명 (61%)
감정(정서)의 의미	30명 (59%)	10명 (25%)
완화의 의미	3명 (6%)	5명 (13%)
합계	51명	39명

남녀별로 부가의문문 사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총 51명, 남성은 총 39명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였다. 부가의문문의 사용과 관련된 남녀의 차이는 사용빈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서도 드러난다. 조사 대상의 35%의 여성이 부가의문문을 조동사의 의미로 사용한 반면, 남성은 61%가 사용하였다. 부가의문문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부가의문문의 59%를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고, 남성은 부가의문문의 25%만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동일한 부가의문문이라도 남성과 여성이 그 기능을 달리 부여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굿윈은 여성어의 화용론적 특성을 필라델피아 청소년 집단에서 통용되는 대화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소녀들은 ‘can’ 이나 ‘could’ 등을 사용함으로써 명령형보다는 제안형의 언어를 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 한다(Goodwin 34)”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소녀들이 ‘maybe’ 와 같은 어구를 사용하여 지시적인 상황의 대화를 부드럽게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년들은 ‘Get off my steps’ 등과 같은 명령형이나

직접 지시형을 소녀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언어 사용의 화용론적 차이가 “소녀들의 경우, 계층이나 엄격한 서열 구조보다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데 반해 소년들은 서열과 계층구조를 중시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플렉너는 “영어의 대부분의 슬랭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다(Flexner 127)”고 설명한다. 레이코프(1975)는 “여성은 ‘oh! dear,’ ‘my goodness’ 와 같은 표현을 더 빈번히 사용하고 남성은 ‘damn,’ ‘shit’ 등과 같은 욕설과 관련된 감탄사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Kramerae 97)도 *New Yorker*에 실린 만화를 조사한 결과,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남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보다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리트-펠그리니도 여성과 남성의 대화중에 나타나는 중복하기와 방해하기를 살펴보았다. 그는 “화자가 남성이면서 지식이 많을수록 대화 시에 대화 회수나 중복하기와 방해하기 횟수가 많다는 것(Leet-Pellegrini 113)”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지식수준이 낮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대화 횟수 및 중복하기와 방해하기가 월등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지지하는 독립언(감탄사)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이 많은 남성이 지닌 중복하기와 방해하기 경향은 그룹 내의 힘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하기 때문”이라고 펠그리니(120)는 설명한다. 한편 지식수준이 높은 여성은 “상대방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가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화중에 방해하기와 중복하기와 같은 방법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였다.

2.2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과 의미

2.2.1 한국어 여성어의 화용·통사적 특성

한국어 여성어의 화용·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특히 화용·통사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대화 부분을 여성이 번역할 때에 어떠한 문체를 띄면서 번역하며 어디에서 그 근거와 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석규·김선희(77)에 의하면 한국어 여성어는 다음과 같은 화용·통사론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술문을 선호하지 않

으며,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명령을 할 경우에도 명령문을 자주 사용하는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청유문을 즐겨 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어머나,’ ‘어머,’ ‘어머머,’ ‘어쩐,’ ‘아이,’ ‘아이참,’ 등과 같은 감탄사를 현저하게 많이 사용한다. 이들은 또 여성이 남성보다 미완성형의 문장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비격식체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격식체를 즐겨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와는 대조를 이룬다. 남성의 경우 높임의 ‘-습니다’ 를 사용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어요’ 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 의존형 어미의 경우 남성은 ‘-으오,’ ‘-소’ 체를, 여성은 ‘-어요’ 체를 즐겨 사용한다. 의문형에서 아주낮춤의 경우 남성은 ‘못하냐,’ ‘그러냐,’ ‘안오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오냐)’ 체를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못하니,’ ‘그러니,’ ‘안오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니’ 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임홍빈(115)은 청자 대우법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어의 특징으로 같은 대우를 할 때 즐겨 사용되는 ‘-우’ 형과 낮은 대우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어’ 형을 들었다.

임홍빈(119)은 의문문과 ‘해요’ 체를 중심으로 한국어 여성어의 특징을 논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의문문(특히 확인 동의성 의문문)을 과다 사용하는데 이는 청자와의 대화 지속을 위한 전략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단순 의문문과 상대방에게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가의문구로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알았죠?’ 등이 있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루높임의 ‘해요’ 체를 사용한다. ‘해요’체는 근대 국어에서 여성·아동을 중심으로 친근·공손어법으로 정형화되었다. 전후 세대에서는 남성들도 공손한 표현으로 ‘해요’ 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어가 격식 위주의 남성 언어를 변화시키면서 그 세력을 확장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하우?’, ‘하니?’, ‘더라구요,’ ‘-거 같아요,’ ‘-거 있죠’ 등도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더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성어의 중요한 요소로 굳어졌다. 그 밖에 ‘자기,’ ‘그이’등과 같은 표현도 여성들이 주로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선희(156)는 여성어에 나타나는 화용 · 통사론적 특성을 간접적 표현과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 그리고 유표적 표현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간접적 표현으로는 대용어 부가의문법 ‘너 내 자전거 망가뜨렸구나, 그렇지?’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모호한 표현에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좋을 것 같아요,’ ‘좀,’ ‘계발,’ ‘뭐,’ ‘-어주다,’ ‘-어보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편 공손 표지의 쓰임에 ‘정오까지 이리로 좀 오세요,’ ‘시집이나 가야죠, 뭐’ 등이 여성어의 특징 중 간접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감정이입의 표현으로는 ‘있지(않아요?),’ ‘-지 뭐니?,’ ‘-지 않니?’ 등이 있으며, 확인과 동의 요청에 ‘어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는 거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좋대지 뭐니?’ ‘언니, 어머니’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적 호칭과 친화력을 높여주는 어법의 쓰임에서나 양품점에서 손님에게 ‘언니, 이 옷 참 잘 받는다’고 말하든지 딸이 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김치까지 담가 놓고 그러우?’, 등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 반응에 ‘그럼 하는 수 있지,’ ‘경찰에 알리는 수밖에,’ ‘-네?’, ‘그건 무슨 소리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남성보다 여성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유표적 표현으로는 강조법, 상승어조법 등을 들 수 있다. 강조법에는 정도 부사를 반복하는 것인데 ‘무지 무지 재미있었어,’ ‘너무 너무 잘 하신다’ 등이 있다. 강도 높은 극성 부사를 선택하는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애한테 그것을 사준다고요? 미쳤어요?’, 어머니가 애들에게 ‘너 왜 말 안 듣니? 어이구 저 웬수’ 등이 그 예이다. 특정 어휘에 의한 과장법이나 감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머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 있으며, 주체존재 ‘-시-’ 를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언니가 동생에게 ‘홍, 굉장하시군, 잘해 보시라고’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여자에게 내포된 차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는 ‘난 본래 그런 여잔 걸요, 뭐,’ ‘너는 여자야,’ ‘오빠한테 그러면 되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해보면 영어 여성어와 한국어 여성어는 몇 가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임흥빈(115)에 의해 나타나며 영어 여성어 특성에서는 레이코프(116)와 데이비드 시글러와 로버트 시글러(79)에 의해서 각각 언급되었다. 앞선 두 연구가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의견을 강하게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확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빈번히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와 영어의 여성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여성이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지 각 연구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영어와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이 여성 번역가와 남성 번역가가 번역할 때의 문체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만일 나타난다면 베이커가 언급한 문체의 규범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밝혀내고, 번역할 때 나타나는 여성번역가와 남성번역가의 문체를 비교하여 여성 번역가의 문체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3. 목표 텍스트에 나타난 성에 따른 화용·통사론적 문체 차이

이 절에서는 번역 작품에 등장하는 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번역가와 여성번역가의 화용·통사론적 문체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남녀번역가를 구별할 수 있는 번역 문체의 유의미한 특징이나 유형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여성번역 문체를 여러가지 범주로 분석하여 여성번역가의 문체 특성을 연구할 경우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작품 속의 대화체는 어느 범주의 분석보다 더 여성과 남성의 번역 특성을 내포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사용역(register)에 따라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환언하면, 여성과 남성번역가의 번역 문체 특성 또한 그예외라고 볼 수는 없겠다.

대화체와 관련한 남성과 여성 발화자의 문체 차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가의문문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레이코프(16)에 의하면 여성의 빈번한 부가의문문 사용 경향은 이를 통하여 대화시에 자신의 의견을 강력한 어조로 단정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담아 단언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주도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부가의문문인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여성어의 특성이 여성번역가의 번역 작품에도 나타나는지 또

남성 번역가는 이러한 경향에서 과연 벗어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갈매기의 꿈』에 나타난 번역 문체의 특성을 조사한 내용이다.

3.1.1 부가의문문의 사용

『갈매기의 꿈』

<ST1>

“Well, we don't have to obey the law if we're not a part of the Flock, do we?”

(105)

<TT1> MT-“그래, 지금 우리가 그 무리 중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신동운 94)

<TT2> FT-“하긴 우리가 만일 그 무리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안 그래?” (이덕희 96)

위 예문에서 보면 원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부가의문문을 남성은 목표 텍스트에 반영하지 않고 번역한 반면 여성은 원문에 충실하게 부가의문문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다. 이는 여성 발화자의 대화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어의 특징 중 하나인 부가의문문 사용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조를 낮춤으로써 여성 발화자는 대화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원문의 부가의문문을 애써 무시하여 번역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대화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도록 이끌어가는 효과를 내는 남성의 번역과 대조를 이룬다.

영어의 여성어와 한국어의 여성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가의문문의 빈번한 사용이라는 특징이 『갈매기의 꿈』외의 조사 대상 여섯 작품에서도 나타나는지 분석하겠다. 만약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골고루 발견된다면 이는 반복적인 부사의 사용과 더불어 또 하나 특유의 문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주로 더 빈번히 사용하는 여성어로 부가의문문을 들 수 있겠다. 다른 작품에서 부가의문문을 여성과 남성 번역가가 번역한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작품인 『갈매기의 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

문을 충실히 번역한 경우가 1회 더 나타난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앞선 작품과 동일한 현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목표텍스트에 충실히 번역한 경우가 3회 더 발견되었다. 『위대한 갯즈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회 정도 원천텍스트의 부가의문문을 충실히 번역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사용을 즐겨 사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어의 여성어를 목표텍스트인 한국어로 번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충실히 번역한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원천텍스트에 부가의문문이 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생략하여 번역한다는 것이 여러 작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가의문문을 번역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성이 의식적·무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어의 특성이 번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3.1.2 독립언(감탄사)의 사용

이번 절에서는 『제인 에어』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부가의문문 외에 남녀의 문체 차이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제인 에어』

<ST1>

“Yet how well you replied this afternoon.”(57)

<TT1> MT-“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대답을 잘 하더라.”(김성구 62)

<TT2> FT-“하지만 오늘 오후에 대답도 잘하더라, 얘.”(김수연 59)

위의 예문은 성별의 차이에 따른 번역 문체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이들 예문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경우 문장 끝에 ‘얘’ 라는 일종의 독립언(감탄사)을 첨가해 번역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은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고 원문에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앞서 분석한 부가의문문의 경우는 원천 텍스트에 이미 나타나있는 요소를 애써 무시하고 번역한 남성과 원문의 부가의문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여성의 모습을 보며 여성어의 특

정을 가려낼 수 있었다. 이번 경우 여성은 원천 텍스트에는 나타나지 않은 감탄문을 원문에 추가하여 번역 하였는데 이는 여성어의 특징 중 하나인 독립언(감탄사)을 통하여 등장인물인 한 여성 발화자의 여성성을 강조하여 독자로 하여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대화의 분위기와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조를 낮춤으로써 비격식적 분위기를 증폭하고 부드러운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3.1.3 여성어적 표현 사용

3.1.3.1 ‘같은,’ ‘같아요,’ ‘같다’ 문체

『제인 에어』

<ST1>

Often I lose the very sound of her voice; I fall into a sort of dream. (56)

<TT1> MT-선생님의 말소리를 놓쳐버리는 일이 가끔 있어. 난 그때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박종학 68)

<TT2> FT-스캐처드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온 정신을 쏟아야 할 때에도 그러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어. 난 꿈같은 것에 빠지곤 해. (김문영 70)

『오만과 편견』

<ST1>

“He must be an oddity, I think.”(62)

<TT1> MT-“괴짜임에 틀림없겠어요.”(홍건식 80)

<TT2> FT-“좀 별난 사람인 것 같아요.”(정은경 64)

여성이 원저자인 『오만과 편견』에서의 여성어를 목표 텍스트의 남성과 여성이 번역 문체상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I think’ 를 목표 텍스트의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면 남성은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인 ‘I think’ 를 여성어적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여성은 목표 텍스트에 ‘같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제인 에어』에서 여성 번역가 김문영이 사용한 번역 문체와 동일하다. ‘같아요’ 라는 표현은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빈번히 사용하는 애매함을 나타내는 여성어이다. 참고로 ‘I think’ 라는 어휘는 영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여성어라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원저자가 여성인 두 작품 즉, 『오만과 편견』, 『제인 에어』에서 남성과 여성이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어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진단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 동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더 세밀하게 잘 번역한다는 것을 각 예문들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여성이 원저자인 마지막 작품으로 『폭풍의 언덕』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남성보다 여성이 원천 텍스트의 등가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지 작품 속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폭풍의 언덕』

<ST1>

Joseph was an elderly, nay, an old man, very old, perhaps, though hale and sinewy.

(4)

<TT1> MT-조셉은 중년, 아니 노년에 가까운 사나이였다. 우락 부락하고 튼튼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아마 나이를 굉장히 먹은 듯했다. (안동민 10)

<TT2> FT-조셉은 중년, 아니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건강하고 근육이 단단하긴 하지만 몹시 늙어보였다. (김은정 4)

원작의 성이 여성인 작품으로 마지막 분석 대상인 『폭풍의 언덕』에서 여성어를 각각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번역 문체 특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번역 문체 특성을 살펴보면, 앞선 두 작품 『오만과 편견』과 『제인 에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번역 문체 특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풍의 언덕』원천 텍스트에 표현된 여성어 ‘perhaps’ 를 목표 텍스트의 여성과 남성이 각각 번역한 번역 문체를 비교해 보면, 남성은 ‘아마’ 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같다’ 로 각각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 즉 여성어로 ‘perhaps’ 언급하였다. 여성은 목표 텍스트에 ‘같다’라는 번역 문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빈번히 사용하는 여성어로 구분된다. 한편, 남성이 번역한 ‘아마’라는 표현은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이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목표 텍스트에 그 등가적인 의미를 더 잘 번역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여성이 원작인 작품 『오만과 편견』,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의 총 세 작품을 통하여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남성과 여성이 목표 텍스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총 5개의 예문을 3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여성이 남성보다 목표 텍스트에 여성어의 특성을 살려서 원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성어적 의미를 최대한 유지시켜 번역한다는 것을 각 예문을 통하여 증명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원작의 성인 여성인 작품에서 여성어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번역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문학 작품의 번역과 같이 원저자가 지니고 있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나 감정 · 느낌을 최대한 살려 번역해야 하는 필요성이 어느 분야의 번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여성이 원작인 작품과 여성이 여성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그 관계를 증명하였는데, 이러한 증명으로 인한 결론은 앞으로 한국에서 번역이 발전할 것을 전제할 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원저자의 성과 번역가의 성을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문체 번역을 통하여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1.3.2 ‘정말’ 문체

『오만과 편견』

<ST1>

“I wish you had been there, my dear, to have given him one of your set downs. I quite detest the man.”(15)

<TT1> MT-“당신이 거기에 계셨던들 당신 방법으로 한 번 멋지게 콧대를 꺾어주실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홍건식 23)

<TT2> FT-“원 참, 당신도 같이 가서 한바탕 골탕을 먹여줄걸 그랬어요.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예요.”(정은경 17)

번역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문체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눈에 띄게 찾아 볼 수 있다. 원천 텍스트의 ‘quite’라는 어휘는 영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여성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목표 텍스트의 남성과 여성이 번역한 번역 문체를 비교해보면 위의 원천 텍스트의 여성어를 각각 남성 번역가 홍건식은 ‘-도’로 번역하였고 이에 비하여 여성은 ‘정말’로 번역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의 부사 사용 특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정말’이라는 부사와 강조할 때 ‘정말 정말’이라는 강조 부사를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위의 『오만과 편견』의 여성어를 번역한 여성과 남성의 번역 결과물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목표 텍스트에 여성어적 특성을 더 잘 살려서 번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여성 작가 작품인 『제인 에어』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어를 더 세밀하게 번역한다는 현상과 동일하다. 다음은 여성 번역가 정은경이 동일한 작품 안에서 일정하게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여성어를 목표 텍스트에 여성어적 특성이 나타나게 번역하였는지 다른 예문을 발췌하여 객관적으로 그 문체 특성의 유형을 관찰하겠다.

3.1.3.3 ‘-구(나)’와 ‘-지,’ ‘-야’ 문체

『노인과 바다』

<ST>1

“I remember”, the old man said. “I know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10)

<TT1> MT-“기억하구 말구.” 노인이 대답했다. “내가 내 숨씨를 의심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는 것도 알지.” (이경식 11)

<TT2> FT-“그럼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내 곁을 떠난 이유가 내 숨씨를 의심해서가 아니란 것은 나도 알아.” (홍미란 7)

『제인 에어』

<ST1>

“Silence! This silence is almost repulsive.” and so, no doubt, she felt it. (18)

<TT1> MT-“조용히 해! 이렇게 야단스럽게 굴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구나.” (박종학 24)

<TT2> MT-“조용히 해! 이렇게 범석 떨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물론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김문영 30)

위의 열거한 예문을 분석해 보면 『노인과 바다』와 『갈매기의 꿈』에 나타난 남녀 번역가의 문체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도 남성은 원천 텍스트의 표현을 각각 ‘불쾌하기 짝이 없구나,’ ‘정말 무섭구나’ 등으로 번역하여 ‘-구나’ 또는 ‘-구나’ 문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여성은 동일한 표현을 ‘그럼 기억하지’ 와 ‘불쾌하기 짝이 없다’로 번역하였다. 위의 예문들 외에도 『노인과 바다』와 『제인 에어』에서 각각 1회씩 더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번역가가 남성번역가보다 동일한 원천텍스트를 가지고 번역할 경우, 한국어의 여성어를 더 사용하여 번역하여 여성어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번역문체는 원천텍스트의 성이 남성일 지라도 여성번역가가 여성어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와 같이 고등교육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여성번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간과될 수 없는 하나의 번역패턴 현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성과 남성의 번역 문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체를 비교하겠다. 다음의 문체 비교는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여성이 많이 주로 사용하는 문체와 남성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체를 발췌하여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여성어가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으로 분리되어 특성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번역에도 그 특성이 여성번역가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3.1.3.4 ‘-소’와 ‘-지,’ ‘-데’ 문체

『갈매기의 꿈』

<ST1> For a thousand years we have scabbled after fish heads. (40)

<TT1> MT-“수 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머리밖에 찾아다니지 못했소.” (신동운 36)

<TT2> MT-“수 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덕희 31)

『위대한 갯츠비』

<ST1>

“You are!”he took down his drink as if it were a drop in the bottom of glass.
“How you ever get anything done is beyond me.” (12)

<TT1> MT-“그러시오” 그는 잔 밑바닥에 술이 한 방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잔을 들어 올려 쭉 들이켰다.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씀이야.” (김육동 23)

<TT2> FT-“그러시겠지.” 그는 마치 술이 잔 밑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더라도 한 듯 카테일을 단숨에 마셨다.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난 알 길이 없어요.” (유혜경 34)

『오만과 편견』

<ST1>

“I have heard you mention them with consideration these twenty years at least.” (5)

<TT1> MT-“적어도 20년 동안 당신이 신경 애길 할 때마다 각별히 고려를 해가며 말하는 것을 들었소.” (홍건식 13)

<TT2> FT-“적어도 20년 동안은 당신이 신경 애기를 할 때마다 무척 측은해했는걸.” (정은경 9)

위에서 남성과 여성의 번역문체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어 여성어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서 ‘-소’ 문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여성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남성이 '-소' 문체를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 번역가에게서도 잠재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막연하게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의 존재여부와 어떠한 차이인지 분석한 것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은 문학 작품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번역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적용시켜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하는 근거 제시가 될 수 있겠다. 그 밖에 여성과 남성의 번역문체로 어떠한 것등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어 여성어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특징지을 수 있는 사항을 응용하여 각 작품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3.1.3.5 '-군,'과 '-(어)요,' '-데' 문체

『제인 에어』

<ST1>

“You have lived the life of a man: no doubt you are well drilled in religious forms;- Brocckehurst, who I understand directs Lowood, is a parson, is he not?” (123)

<TT1> MT-“수녀생활을 해왔군. 종교적으로 잘 단련 받았겠군.” 브로클러스트씨가 로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자는 목사지요? (박종학 146)

<TT1> FT-“당신은 수녀 같은 생활을 해왔군. 틀림없이 당신은 종교적 조직 속에서 단련을 받았어요. 브로클러스트는 로드를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목사지요?” (김문영 141)

『위대한 갯츠비』

<ST1>

“Very romantic,” he said. and then miserably to me: “If it's light enough after dinner, I want to take you down to the stables.” (16)

<TT1> MT-“아주 낭만적이지.” 그는 대답하고 나서 괴로운 듯이 나를 향해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아직 환하면 자네에게 마구간을 구경시켜 주고 싶군.” (김옥동 30)

<TT2> FT-“굉장히 로맨틱한데.” 톰은 이렇게 말하고 난 뒤 괴로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저 아래 있는 마구간을 보여주고 싶는데.” (유혜경 32)

『노인과 바다』

<ST1>

“I had better re-bait that little line out over the stern.” he said. (65)

<TT1> MT-“고물 쪽에 있는 가는 낚싯줄에 미끼나 새로 끼워야겠군.” (황중호 74)

<TT2> FT-“작은 줄에 미끼를 새로 달아서 그물 쪽에 드리워 두는 것 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이 말했다. (이혜리 93)

위의 인용문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남성이 ‘-군’이라는 번역문체를 빈번히 사용하며 여성은 위의 문체를 기피하여 번역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번역의 현상은 위의 예문들만이 아니고 『제인 에어』에서 한번 더 나타나고 『노인과 바다』에서 한번 더 출현한다.

4. 결론

한국의 번역에 대한 인지도와 번역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시작된 여성언어 및 여성문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플로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여성적 번역 문체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성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그것과 번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고등교육으로 인한 여성 번역가의 증가는 한국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미나 중요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국 번역계가 중시해야할 성장 과정의 단계이자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번역 문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논문은 문학작품 번역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알맞은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번역 문체 연구를 문학번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 작품 번역이 다른 글쓰기의 경우보다 고도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섬세하고도 충실한 번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갈매기의 꿈』,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갯츠비』, 『마지막 잎새』 등 일곱 편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학 작품 속의 대화체를 중심으로 번역시 나타나는 남녀 문체의 차이와 특성을 화용·통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일곱 편의 영미 소설의 목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가의문문을 더 자주 사용하여 번역한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원작에 부가의문문이 있는 경우, 여성은 부가의문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반면 남성은 부가의문문을 무시하고 번역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원작에 부가의문문이 없을 경우에도 여성 번역가가 부가의문문을 덧붙여 번역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일반 대화 시 나타나는 영어 여성어와 한국어 여성어의 공통적인 특성인 부가의문문의 빈번한 사용이 번역시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예로써 중요한 여성 번역 문체 특성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 중 특이할 만한 것은 여성들이 대화체에서 ‘그래,’ ‘응,’ ‘맞아,’ ‘정말,’ ‘뭐,’ ‘애’ 등의 독립언(감탄사)을 남성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영어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well,’ ‘y’know,’ ‘sorta,’ ‘kinda’ 등을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 영어의 여성어 특성이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번역 작품을 분석한 결과 여성 번역가들은 원작에 나타난 이러한 여성어적 표현을 충실하게 번역한 반면 남성 번역가들은 여성에 비해 충실하지 못하게 번역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화체에 나타나는 한국어 남성어와 여성어의 또 다른 특성은 서로 상이한 상황 의존형 어미의 사용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오,’ ‘-(으)오,’ ‘-쇼’ 체를 즐겨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어요’ 를 더 자주 사용한다. 또한 ‘-으냐’와 같은 높

은 명령 격식체 어구는 남성이 주로 사용하며, 여성은 ‘-니’ 체를 남성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성어의 특성이 문학 작품 번역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번역에도 여성어의 특성이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등가성을 살린 충실한 번역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함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대처럼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렇듯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번역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체 하나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을 문학 작품 번역시 이러한 여성적 문체는 충실한 번역과 그렇지 못한 번역을 나누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작, 특히 여성 작가의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작에 등장하는 여성어를 더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번역 작가 선정 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분석 텍스트

- Austen, Jane. 2003.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Books.
- 정은경 옮김. 2004.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청목사.
- 홍건식 옮김. 2002.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육문사.
- Bach, Richard. 1973. *Jonathan Livingston Seagull*.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 이덕희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하서.
- 오영민 옮김. 2004.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도로시.
- 신동운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청목.
- 송은실 옮김. 2003.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소담출판사.
- Brontë, Emily. 2003. *Wuthering Heights*. London: Penguin Books.

- 김은정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일신출판사.
- 안동민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범우사.
- Brontë, Charlotte. 2000. *Jane Eyre*. New York: Oxford UP.
- 김문영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하서출판사.
- 김성구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청목.
- 김수연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일신.
- 박종학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홍신문화사.
- Fitzgerald, F. Scott. 2000. *The Great Gatsby*. New York: Oxford UP.
- 김연희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하서출판사.
- 김의승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뜻이 있는 사람들.
- 김육동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민음사.
- 유혜경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소담출판사.
- Hemingway, E. 2003.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Simon & Schuster.
- 이경식 옮김. 1999.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문예출판사.
- 이혜리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청목.
- 황중호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하서출판사.
- 홍미란 옮김. 2003.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도로시.
- Henry, O. 1980. *The Last Leaf*. London: Routledge.
- 강영길 옮김. 1994.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일신 서적출판사.
- 김선영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좋은 생각.
- 박수남 옮김. 2002.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육문사.
- 신현미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도로시.

(2) 참고문헌

- 구현정. 2004. 『대화의 기법』. 서울: 경진문화사.
- 김선희. 1992. 여성어에 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 19. 목원대.
- 민현식. 1995.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석규, 김선희. 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대전: 목원대 출판부.
- 임규홍. 2003. 『젠더를 말한다』. 서울: 박이정.

- 임흥빈. 1993. 『국어의 여성어』. 서울: 국학자료원.
- 장영희. 2000. 「20대 남녀 사용 어휘의 대비적 고찰」. 『화법연구』2. 한국화법학회.
- 전혜영. 1999. 『여성대상 표현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태학사.

- Baker, Mona. 1990. *In Other Words*. London: Euroterm.
- Bassnett, Susan. 1998.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Coates, Jennifer. 1992. *Women, Men and Language*. London: Longman.
- Flexner, Stuart B, 1960. *Preference to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New York: Thomas Y. Cromwell.
- Flotow, von Luise. 1997. *Translation and Gender*. Ottawa: U of Ottawa P.
- Goodwin, Marjorie Harness. 1980.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Praeger
- Gomn, Isabel. 1981. *A Study of the Inferior Image of the Female Use of the English Language as Compared to that of the Male*. Ormskirk: Edge Hill College.
- Holmes, Janet. 1984. Hedging your bets and sitting on the fence: some evidence for hedges as support structures, *Te Reo* 27:47-62.
- Jespersen, Ott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ramarae, Cheri. 1981. *Women's Speech*. New York: Routledge..
- Lakoff, Robin.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Leet-Pellegrini, Helena M. 1980. *Social Psychological*
- Siegler, David and Siegler, Robert. 1976. *Psychological Reports*. London: Routledge.
- Strodberk, Fred and Mann, Richard. 1956. *Sociometry*. London: Routledge.
- Trudgill, Peter. 1975.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Zimmerman, Don and West, Candace. 1975.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New York: Newbury House, Rowley.

[Abstract]

Women's Translation Styles in Novels

Kim, Dong Mie

(Baekseok College of Cultu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ranslation styles between men and women and to set up a translation strategy. In order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used in both male and female translators' works, I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discourse and semantics. I analyzed the women's and men's styles as found in seven novels. Three of these works were written by women, the other four by men.

The investigation way was to compare women's and men's conversation styles. When Korean women translate the SL convers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ry works into TL, Korean, they tend to translate SL into the standard form of the Korean language, while men tend to translate the same expression into a Korean dialect of one form or another.

Women translators tend to translate the women's language of the source texts more accurately and equivalently. The existence of women's distinctive translation styles means much in the world of Korean translation, since it contributes to the forming of an important translation strategy. I suggest that the faithful and equivalent translation of the female writers' literary works should be conducted by women translators who are more keen and sensitive to women's language in the source texts.

▶ Key Words: women's language, women translator, source text, target text, feminist translation, translation style

김동미

백석문화대학

belle-kim75@hanmail.net

관심분야: 영문법, 시무영어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